



드디어 북큐레이션을 배우다

서울 강북구 내 작은도서관 5개소

이렇게 '스스로'를 시작했어요

스스로 아카데미 강북모임에는 강북구에 있는 작은도서관 함께놀자, 책읽는마을 북카페, 마을꿈터, 밝은, 책이랑놀자, 우리동네, 번동 새마을문고, 삼양동새마을문고가 참여하고 있다.

인수동에 있는 '작은도서관 함께놀자'는 2010년에 같은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낸 엄마들이 만든 책모임과 동네 주민들이 모여서 방 두 칸인 가정집에서 시작한 작은도서관입니다. 동네사람들이 주인이고, 운영진이고 선생님이고 재능기부도 하는 마을거점공간으로 책읽기모임, 기타동아리, 마을배움터, 방학교실, 공공-작은도서관 연계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책이랑놀자'는 2002년에 주부들이 모여 마을에서 내 아이들이 마을 아이들과 함께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단순히 책을 빌려주고 읽는 공간이 아닌 마을의 주민들과 아이들을 위한 책, 문화 프로그램 및 마을 공동체 활동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는 곳으로 지역주민들·지역단체들과의 유대관계 및 참여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밝은 작은도서관'은 삼각산동이 재개발되기 전부터 마을이 달라진 것을 지켜본 도서관입니다. 주변이 한창 공사 중일 때는 아이들의 놀이터로 지금은 마을의 커뮤니티공간으로 성장하고 있고 독서동아리와 우쿨렐레 모임 등을 통해 마을공간의 역할과 지역내 작은도서관 운동의 씨앗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패산마을공동체마을-꿈터도서관'은 송중초 인근에 자리잡고 있어 송중초, 화계초 학생들과 어머니들이 주로 이용하며 어린이 방과후 프로그램과 엄마들을 위한 여러 가지 소모임 운영합니다. 책읽는 문화 확산을 위해 독서모임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책읽는마을 북카페'는 2012년에 유희공간을 우리동네 북카페로 조성하는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강북청소년문화정보도서관 1층 정보검색대 공간에서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마을북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읽는마을은 지역의 주민들에게 쉼터와 힐링의 공간으로 자리 잡기 위해 노력해왔고 문화예술공연, 아이들, 청소년, 성인들의 마을배움터 공간 그리고 다양한 재능을 나누는 재능

나눔터가 되어왔습니다

또, 번동에 위치한 '우리동네 작은도서관'은 교회에서 운영하며 다양한 문화독서프로그램과 강북구 혁신교육사업인 틈새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 계기

작은도서관에서 활동하면서 북트레일러, 하부르타 토론, 비경쟁토론, 글쓰기, 북아트, 발도르프 교육 등 독서와 관련된 강좌를 직접 열거나 좋은 강좌가 있다고 하면 들으러 다녔다.

관심이 있던 북큐레이션은 2018년에 '작은도서관 함께놀자'에서 2회기를 준비해 들었고, 2019년에 도봉도서관에서 북큐레이션 강좌를 진행해 수강을 했다. 북큐레이션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게 되었지만 미진했고 좀 더 공부해서 우리 도서관에서 전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여건에 도서관 운영에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는 작년에 책친구 사업에 지원하면서 연계가 되었다. '2019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사업은 작년부터 알고 있었지만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올 해에는 북큐레이션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에 고민을 하였다. 몇 년간 알고 지내는 강북에서 도서관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권유하면 관심을 가질 것 같은 도서관 사람들에게 전화를 했다. 망설이는 분에게는 사업에 지원한다고 꼭 선정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말라고 말했다. 이 분들과는 구립과 작은도서관 월례회의에서 오래 만나 왔지만 구립지원으로 작은도서관 책축제를 1회 같이 한 경험 외에는 뜻을 모아서 같이 활동한 적이 없다. 이런 자발적인 모임을 하면 공부도 하고, 서로 친해지고 네트워크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 전국 단위로 뽑는 사업이라 선정되고 나서 모두 기뻐했고 어깨가 으쓱했다.

이렇게 공부했어요

스스로 아카데미
-다섯개 작은도서관이 함께 모여 공부하는 북큐레이션-
(6월말~10월말)
1. 한달에 2회 모여 북큐레이션 관련 책 읽고 공부하기(격주 월요일)
2. 선생님께 배우기-강좌2회/ 워크샵2회
"안정희 선생님" (8/12, 8/19, 9/2, 9/9 총 4회)
- "도서관에서 책과 연애하다" 저자
- 노티나무도서관재단 기획교육성명이사
3. 도서관 탐방(4개소변동 가능)
- 흥부네 그림책 도서관
- 천일 어린이 도서관
- 아크연북
- 청운문학관

스스로 아카데미 북큐레이션 강좌
도서관에서 연애하다
책과 기록이 상처를 위로한다
● 강사: 안정희
● 일시/장소: 1차시_8월 12일(월)10시 / 2차시_8월 19일(월)10시
● 대상: 성인
● 장소: 송은문 도서관(마포역역 부근)

- 공부모임 : 6/24(월), 7/22(월), 8/5(월) 오전 10시~12시
- 북큐레이션이 특화된 작은도서관 탐방 3회
 - 흥부네그림책작은도서관(7/2)
 - 책읽는엄마 책읽는아이(8/28 수)
 - 꿈터작은도서관(10/10 목)
- 북큐레이션 강좌 2회 : 8/12(월), 8/19(월), 강사 : 안정희
- 북큐레이션 워크숍 2회 : 9/2(월), 9/9(월), 강사 : 안정희
- 북큐레이션 기획준비 모임 3회 : 9/23(월), 10/7(월), 10/14(월)
- 북큐레이션 전시
 - 작은도서관 책이랑놀자 - 10/19(토), 수유일공원, 백희나 작품 전시 및 책놀이
 - 우리동네작은도서관 - 10/21(월) ~ 10/31(목), 백희나 작품 전시 및 책놀이
 - 작은도서관함께놀자 - 10/25(금) ~ 10/31(목), 음식을 주제로 그림책, 성인책 전시
 - 좋은맘 작은도서관 : 10/21(월) ~ 10/31(목), 물고기 관련 그림책전시 및 책놀이
- 마무리 간담회 1회 : 활동 소감 및 평가와 이후 계획 논의, 10/30(수)



스스로 아카데미 강북모임은 주제가 북큐레이션이다. 모임원 중에 북큐레이션을 처음 접하는 분이 많고, 강좌는 예산을 최소한으로 책정해서 먼저 책으로 공부해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강의를 듣기로 했다. 책은 작은도서관 북큐레이션 관련 책을 후보 리스트를 만들어 서로 의견을 나누어 결정했고, 바쁜 생활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한달에 한권을 읽고 모여서 생각을 나누기로 하였다.

였다.

사업 시작인 6월은 작은도서관을 알자는 의미에서 따끈따끈한 박소희 선생님의 '여기는 작은도서관입니다' 을 읽었다. 직접 듣기 위해 강연회에 참여해 사인 받아온 선생님도 있다.

7월 책은 충북 괴산에서 "숲속작은책방"을 운영하는 백창화, 김병록선생님이 쓴 '작은책방, 우리 책 짝 팝니다!'이다. 이곳을 북큐레이션 탐방지로 추천받았는데 당일로 갔다 오기는 거리도 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등의 이유로 책으로 만나기로 했다.



작은도서관 탐방으로 두 곳은 거리가 멀어 좀 힘들었지만 바쁜 와중에도 흔쾌하게 시간을 내주신 도서관 선생님들께 감사인사를 전하고 싶다.

책 토론과 북큐레이션 워크숍까지 마치고, 참여한 도서관 각각의 특성에 맞는 북큐레이션을 기획, 전시하기 위한 모임을 9월부터 10월에 3회 가졌다.

'작은도서관 책이랑놀자', '우리동네 작은도서관', '삼양동 새마을문고' 선생님들이 10/19(토)에 수유일공원에서 열린 수유1동 마을축제에 참여해 백희나 작가의 그림책을 전시하고 책놀이를 진행했다. '우리동네 작은도서관'도 10/21(월)부터 10/31(목)까지 백희나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고 책놀이를 진행했으며, '좋은맘작은도서관'은 물고기 관련 그림책을 10/21(월) ~ 10/31(목)까지 북큐레이션했다. '작은도서관 함께놀자'는 음식을 주제로 성인책과 그림책으로 나누어 전시하고, '마을꿈터 도서관'는 미니멀리즘을 주제로 책을 전시하고 북큐레이션을 본 이용자들이 각자의 집에서 정리하고 버릴 물건을 결정해 이름을 적어 넣는 함을 설치할 계획이다.

8월은 마이클 바스카 저 '큐레이션'이다. 이 책은 경제/경영서 분류되며 큐레이션을 "과감히 털어내는 힘"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책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 변화를 알아야 해서 사회 전반에서 적용되고 있는 큐레이션을 설명하고 있는 이 책을 선택했다. 내용이 많아 읽을 분량을 각자 나누어 맡았지만 어려운 용어, 역사적 사실, 여러 분야의 큐레이션 사례 등이 있어 완독하기 힘든 책이었다.

8월은 북큐레이션의 개념, 북큐레이션 방법론과 사례 등을 배우는 강좌를 2회하고, 9월에는 작은도서관 특성에 맞는 북큐레이션을 기획하기 위해 강사님과 워크숍을 2회 진행했다.

또, 공부를 하면서 이론만 아니라 작은도서관에서 북큐레이션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실제로 보기 위해 북큐레이션이 특화된 작은도서관을 3회 탐방하였다. 7월은 오류동에 있는 '흥부네그림책작은도서관', 8월은 성동구에 소재한 '책읽는엄마 책읽는아이', 10월은 성북구에 있는 '꿈터작은도서관' 탐방으로 두 곳은 거리가 멀어 좀 힘들었지만 바쁜 와중에도 흔쾌하게 시간을 내주신 도서관 선생님들께 감사인사를 전하고 싶다.

앞으로 우리는

모임은 유지하기로 모두 찬성했고 한 달에 한번 만나기로 했다. 무엇을 할 것인지는 그림책 공부와 서로간의 친목도모, 다른 주제를 정해 공부하기 등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다. 스스로 아카데미를 계기로 회의 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주 만났으면 하고, 이왕이면 작은도서관협회도 만들고 서로에게 지지와 위안이 되는 관계가 되길 바란다.

“드디어 북큐레이션을 배우다.”를 함께한 소감

북큐레이션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건지 또 우리 도서관에서도 하고 싶어서 시작한 이 모임. 4개월 동안 15차례의 다양한 만남을 가지면서 (공부모임, 탐방, 강좌, 준비모임 등)이렇게 자주 도서관 샘들을 만나니 힘은 들었지만 보람도 있었다.

북큐레이션을 주제로 정한 3권의 책을 통해서 다른 도서관의 모습을 살펴보며 우리 도서관의 현실을 이야기하기도 했고 다른 지역 도서관을 탐방하면서 부럽기도 하고, 우리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보기도 하고, 도서관에서 나의 역할은 어떠한지 나를 돌아켜 보기도 했다.

그리고 어렵게만 생각한 북큐레이션을 안정희 강사님과의 만남을 통해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고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도 잡아가며, 책과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점이 좋았다. 더 좋았던 점은 다른 도서관 선생님들과 함께 준비하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동질감, 친밀감이 생겨났다고나 할까? 우리는 그동안 일로만 만나서 서로를 이해하고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었구나 싶었다. 앞으로는 한 달에 한번이라도 그림책으로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다.